

お名前 () さん

국가 경쟁력 유지에 있어서 장수 기업들이 오랜 세월 명맥을 이어가는
것은 큰 의미를 가지는데도 불구하고, 기업 승계를 사실상 어렵게 하는
조세 부담이 기업인들의 사기를 꺾고 있습니다. 이러한 상황은 일본,
독일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.